



고흥군이 특유의 고즈넉한 자연경관과 제철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지 를 소개하며 겨울철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고흥의 겨울은 차분하고 깊이가 있는 매력 을 지닌 계절로, 맑은 공기 속에서 자연과 마주하며 몸과 마음을 쉬어가기 좋은 시기 로 평가되고 있다.

사찰과 섬, 해상교량 등 다양한 관광자 원과 청정 해역에서 생산되는 제철 수산물 은 겨울철 고흥 여행의 만족도를 한층 높

여준다.

고흥군 접안면에 위치한 능가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사찰로, 겨울철 고요한 산사 풍경 속에서 깊은 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명소로 꼽힌다.

울창한 소나무 숲과 어우러진 사찰 전경 은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겨울철에 더욱 운치를 더하며, 사색과 힐링을 원하는 방 문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거금도는 겨울철 탁 트인 바다와 고즈넌한 해안 풍경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이

## 팔영대교·매생이·굴 등 볼거리·먹거리 ‘한가득’ 청정해역·제철 수산물 조화…“특별한 계절 추억”

다. 섬 전체를 감싸는 해안일주도로와 웅장한 거금대교가 어우러진 경관은 방문객들에게 시원한 개방감과 차분한 휴식을 선사한다.

특히 겨울철의 맑고 투명한 바다와 은빛으로 빛나는 해변은 거금도 특유의 서정적

인 감성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고흥과 여수를 연결하는 팔영대교는 겨울철 드라이브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탁 트인 해상 위를 가로지르는 웅장한 교량과 겨울 바다의 풍경이 어우러져 낮과 밤 모두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며, 해 질 무렵

노을과 야경은 사진 촬영 명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겨울 고흥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은 단연 제철 먹을거리다. 청정 해역에서 자란 매생이는 겨울철 대표 별미로,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영양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 매생이를 듬뿍 넣어 끓인 매생이 칼국수는 시원하면서도 깊은 맛으로 추운 겨울철 몸을 따뜻하게 녹여준다.

여기에 제철을 맞은 굴 역시 겨울 고흥

의 맛을 대표하는 식재료다.

신선한 굴은 국물 요리부터 다양한 향토 음식으로 즐길 수 있으며, 바다의 신선함을 그대로 담아낸 겨울철 고흥 식탁의 중심을 이룬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의 겨울은 자연과 음식이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계절이다”며 “조용한 여행과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관광객들이 고흥에서 따뜻한 겨울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 구례 로컬 플라마켓 ‘콩장’ 개최 내달 21일부터 서시천체육공원

구례군은 3월 21일부터 서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지역경제와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로컬 플라마켓 ‘콩장’을 개최한다.

상반기 일정은 3월 21일, 3월 28일, 4월 11일 총 3회로, 벚꽃축제와 전남제전 기간에 맞춰 운영된다. 매회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다.

이번 플라마켓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회경제적조직이 참여해 지역 농특산품과 먹거리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또 지역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직접 생산한 농산물 등을 직거래로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 판매 구역’도 운영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27일까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구례군은 2024년부터 지역자원과 민간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기반 창조경제 활성화에 힘써왔다. 이번 ‘콩장’개최는 그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행사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구례형 로컬경제 생태계 조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례=라귀진 기자 lkgjin@gwangnam.co.kr

## 곡성,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청년 대상 문화복지비 25만원

곡성군은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2년 이상 거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 관람, 학원 수강, 도서관 등 문화·자기계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비를 연간 25만원 지원 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20일부터 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2024년 2월 9일 이전부터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19~28세(1998~2007년생)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공무원·교사·공공기관 근로자 등 복지포인트를 지급 받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대상자, 전남도 여성농업인 문화복지바우처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 된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 여수 섬 정보 ‘한눈에’…맞춤 통합 데이터 구축

### 팜플릿 등 정보 제공…관광객 편의 강화

여수시는 9월 개막하는 2026여수세계 섬박람회 성공적인 개최와 유인도서의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YEOSU 섬 STORY’ 섬별 맞춤형 통합 데이터를 구축한다.

이번 데이터 구축은 섬박람회 부행사장 인 금오도와 개도 등 섬 지역 특성을 분석해 수요자 중심의 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데이터 구축 대상은 유인도서 중 금오도와 개도를 포함한 10개 도서로 교통·편

의시설·역사·문화는 물론 섬별 축제, 볼거리, 먹거리, 트레킹 코스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함께 제공해 체류형 섬 관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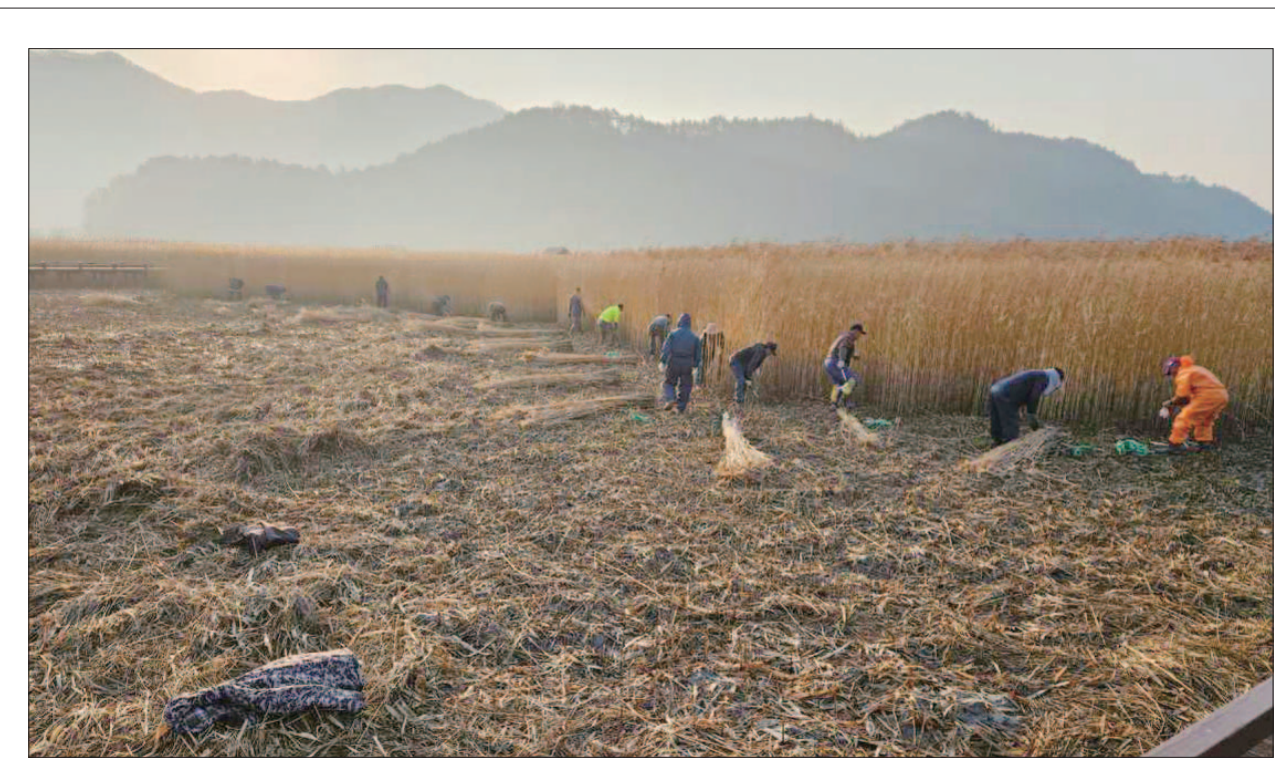
시는 3월까지 섬별 데이터 구축 기초자료를 확정하고 4월부터는 팜플릿 제작과 함께 K-관광 섬패스와 연계한 여수엔 홍보, JN투어, 섬박람회조직위원회 공식 누리집 및 시청 누리집 게시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스마트한 섬 관광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섬별 데이터는 섬박람회 종료 이후에도 관광객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되며 축적된 자료는 정보 제공 이외에도 섬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관광 정보 제공을 통해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여수 섬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성 높은 관광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여수의 365개의 섬과 바다를 무대로 한 세계 최초의 섬박람회로,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61일간 여수 전역에서 펼쳐진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지역 주민들이 순천만 갈대숲 탐방로 묵은갈대를 베고 있다.

### 황금빛 갈대꽃 피기를 기다리며…

## 순천만 갈대숲 탐방로 ‘새단장’

순천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소조지 간조 물 때 전후 5~6일 동안 순천만습지 일원에서 갈대숲 탐방로 고엽갈대 제거와 원형갈대 군락 갈대 베기 작업을 추진한다.

순천만은 명승 제41호로 지정된 국내 대표 생태관광지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겨울철 고엽갈대가 누적될 경우 갈대 생장이 저해되고 경관을 해칠 수 있어 묵은 갈대를 베어 줘야 새순이 풍성하게 돌아나 가을에 아

름다운 황금빛 갈대꽃이 핀다.

이번 사업은 대대지역 주민과 대대어촌계 등 지역 주민 약 50명이 참여하는 작업으로 순천만 갈대숲 탐방로 고엽갈대 제거, 순천만 갯벌 원형갈대 군락 복원을 위한 갈대 제거, 해양 쓰레기 수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원형갈대 군락은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내부 구간까지 대대적으로 정비해 순천만 랜드마크인 원형갈대 군락의 생육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베어진 갈대는 국가정원 시설물 보수, 순천만 정자 지붕 보수 및 탐방로 갈대 울타리 제작·보수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순천대학교와 연계해 필요 농가에 사료 활용 및 축사 바닥 깔개 등으로 지원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고엽갈대 제거와 원형갈대 군락 정비는 순천만의 생태적 건강성을 높이고, 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과정이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순천만의 생태경관을 개선하고 갈대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함과 동시에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득 증대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 광양, 슬레이트 처리 지원…석면 피해 예방

### 9억여원 투입…220동 계획

광양시는 노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총 9억 1000만원을 투입해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 140동, 주택 지붕 개량 40동, 비주택(창고·축사·노인 및 어린이시설) 40동 등 총 220동에 대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우선지원 가구와 일반 가구로 구분해 지원 된다.

우선지원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을 전액 지원받으며, 주택 지붕 개량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일반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주택 지붕 개량비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상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발생한다.

비주택 건축물(창고·축사·노인 및 어린이시설)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건축물대장이 없는 가구의 경우에도 신청 시



읍·면·동사무소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 개량은 시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 처리업체에서 시행하며, 개인이 임의로 철거·처리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신청서, 위치도, 사진 등을 구비해 2월 9일부터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gjin@

## “산불 조심…산림은 우리의 소중한 재산”

### 장흥군, 소방서와 합동 봄철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

장흥군은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장흥 토요시장 일원에서 장흥소방서와 합동으로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예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장흥군 관계자와 장흥소방서 소방대원, 산림재난대응단, 의용소방대 등이 참여해 합동 홍보활동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산불조심 합께해요’, ‘산림은 우리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장 일대를 행진하며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적극 알렸다. 힘찬 구호와 함께 진행된 거리 홍보는 시장 상인과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영농부산물 소각이 관행이 아닌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알리는 홍보 포스터와 안내를 배부하며 불법 소각행위 근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하지만 산림과 주민의 삶에 큰 피해를 남긴다”며 “군민 모두가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재난대응단을 운영하고 주요 등산로 및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장흥=정명수 기자